

과로자살 뉴스 기사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카리타스학적 함의*

김미숙 · 김승주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교양학부 연구전담조교수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 서론
2. 문헌고찰
 - 2.1. 가톨릭 사회교리의 노동관
 - 2.2. 과로자살
3. 연구방법
 - 3.1.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 3.2.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4. 연구 결과
 - 4.1. 워드 클라우드
 - 4.2. 토픽 모델링
 - 4.3. 워드 네트워크
5. 논의 및 제언
 - 5.1. 노동의 현실
 - 5.2. 노동의 권리와 인간 존엄성 회복
 - 5.3. 노동과 연대
 - 5.4. 노동과 카리타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2A03051692)

1. 서론

‘과로사(過勞死, Karoshi)’라는 개념은 1980년대 초 일본에서 처음 명명된 사회적 개념으로서 업무와 연관되어 피로가 축적되거나 정신적인 과부하 상태로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과로사는 크게 과로 사망과 과로 자살로 구분된다. 전자는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과 그로 인한 돌연사를, 후자는 과로로 인해 발생한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자살을 뜻한다.¹⁾

과로사는 일본, 중국, 한국과 같이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이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영국에서도 과로사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영국의 Hazards(2003)에 의하면, 21세기 직업병은 심장마비, 뇌경색, 자살이며, 과로사 직업군은 의사, 간호사, 교사, 우체국 노동자로 지목된다.²⁾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이 업무와 관련되어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내몰리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과로로 인한 사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장시간 노동문화가 빚어낸 사회문제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³⁾ 과로사의 한 유형인 과로 자살은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로 간주하여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여전하다.⁴⁾ 전문가들은 한 해 3,4천 명 정도가 과로자살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공식적인 통계는 구하기 어렵다.⁵⁾ 과로자살에 대한 연구는 업무상 재해인정에 대한 법리 연구가 주를 이룬다.⁶⁾ 특정 직업군에 대한 연구가 극소수 있기는 하지만,⁷⁾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로자살의 전반적인 실태를 실증분석한 연구나 과로자살 문제를 가톨릭 신앙 안에서 조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가톨릭 사회교리의 노동관에 비추어서 인간과 노동의 관계를 살펴보고, 과로자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1) 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서울: 나룸북스, 2021), 11.

2) Hazards, *Suicidal work: Work-related suicides are uncounted*, <https://www.hazards.org/suicide/suicidal-work.htm> (2017, 3) ; 김영선, 『존버씨의 죽음』, (과주: 오월의봄, 2022), 243; 재인용.

3) 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11.

4) 황규식,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연구 - 이른바 “과로자살”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9, 4.

5) 차주혁, 「‘과로자살’ 40대 가장이 또 죽었다. 쿠팡에서 벌어진 일」, 『MBC』 (2022년 2월 23일).

6) 참조: 이상윤, 「과로로 인한 자살의 헌법적 문제 - 일본의 경우를 소재로 하여 -」, 『공법학연구』, 8/4(2007), 329-354; 황규식,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연구』, 1297, 김미림, 『자살의 업무재해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1, 1-93.

7) 참조: 송해리, 『간호사 ‘태움’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 제도적 문화기술지 접근』, 석사학위논문,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2022, 1-132.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과로자살” 기사들을 빅데이터 자료로 수집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과로자살 양상을 큰 그림으로 이해하고 가톨릭 사회 회칙 『노동하는 인간』에 비추어 과로자살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을 카리타스학 관점⁸⁾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2. 문헌고찰

2.1. 가톨릭 사회교리의 노동관

2.1.1. 인간은 노동자

인간은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땅을 다스리는 노동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⁹⁾ 그래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지상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노동자이며, 노동은 인간이 지상에 실존하는데 근본적인 영역으로 간주된다.¹⁰⁾ 인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면 자본이 필요하며 노동을 통해서 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은 생존의 본능적 요구를 해결하는 인간 실존의 조건이며 수단이 된다.¹¹⁾ 그러므로, 노동은 인간 생존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2.1.2 노동의 의미

노동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행위를 말한다.¹²⁾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사회 회칙 『노동하는 인간』 5-6항에서 노동의 개념을 객관적 의미와 주

8) caritas(카리타스)는 라틴어로 하느님의 내어주는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의미한다. Caritas를 대문자로 표기하면 가톨릭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조직적인 사회복지 활동과 애덕 실천을 위한 단체를 의미하는 고유 명사가 된다. 참조: 김성우, 「카리타스학 관점에서 바라본 가톨릭 사회복지의 방향」, 『가톨릭신학』, 36(2020), 263. 카리타스학은 인간 존엄성을 옹호하는 사회적 실천(사회복지, 사회교육, 보건의료 등)을 그리스도교 사상과 영성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며 촉진하거나 새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랑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학문이다.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카리타스학전공 소개. <https://www.kkot.ac.kr/gradu/contents/view?contentsNo=145&menuLevel=2&menuNo=238> (접속일 2022. 10. 19).

9)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성서위원회,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창세 1,28.

10) 요한 바오로 2세, 『노동하는 인간』 (Laborem Exercens),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3), 1-4항.

11) 박정률, 『인간 중심 노동 - 회칙 『노동하는 인간』을 통한 인간 노동의 이해』,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18, 16.

12) 요한 바오로 2세, 『노동하는 인간』, 서문.

관적 의미로 구분했다. 객관적 의미에서 노동은 ‘기술’을 뜻한다. 일찍이 인간은 땅을 다스리는 노동을 하면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통해 노동의 문명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인간 노동의 산물이자 협조자인 기술이 발전된 산업화 시대에도 노동의 주체는 (기술이나 기계가 아니라) 언제나 인간이다. 오늘날 최첨단 의료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보건의료직에서 정교한 능력을 갖춘 로봇이 아니라 인간애를 품은 의사와 간호사가 노동의 주체라는 뜻이다.

인간을 ‘노동의 주체’로 상정하는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잘 드러난다. “모든 사회 제도의 근본도 주체도 목적도 인간이며 또 인간이어야 한다.”¹³⁾ 그리스도교 인간학적 이해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전인적 존재이다. 노동은 전인적 인격체인 인간의 활동이므로 노동과 노동하는 인간의 인격은 분리될 수 없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자기완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이며, 인간은 ‘노동의 주체’가 된다.¹⁴⁾

노동은 객관적 의미 못지않게 주관적 의미가 중요하다. 주관적 의미에서 노동은, 노동의 주체인 인간이 고유한 인격체로서 노동을 통해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는 것, 즉 자기실현을 의미한다.¹⁵⁾ 인간은 노동을 통해 사회화를 이루고, 세상을 창조하며, 노동은 개인이 자기실현에 이를 수 있는 특권적인 장소로 간주된다.¹⁶⁾

2.1.3. 노동의 존엄성

노동을 한다는 것은 특히 생계유지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만,¹⁷⁾ 가난하다거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느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가톨릭교회는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셨으나 가난하게 되셨고,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생애 대부분을 노동하며 보내심으로써 노동의 존엄성을 친히 모범으로 보이셨다.¹⁸⁾ 그러므로, 인간의 노동은 사회 통념상 그것이 아무리

1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c),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1), 25항.

14) 요한 바오로 2세, 『노동하는 인간』, 6항.

15) Ibid., 5-6항.

16) 박정률, 『인간 중심 노동 - 회칙 『노동하는 인간』을 통한 인간 노동의 이해 -, 19.

17) 레오 13세,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32항.

18) Ibid., 17항.

단조로운 서비스 노동으로서의 가치밖에 없다 하더라도, 노동의 종류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는 사람이 인격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동의 존엄성’이 있는 것이다.¹⁹⁾

2.2 과로자살

과로자살은 과로로 인한 자살을 의미하며, 과로는 노동이 지나침(過)을 의미한다. 즉, 과로자살은 지나친 노동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문제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노동의 의미와 연결하여 과로, 자살, 과로자살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1 과로

과로(過勞)는 직역하면 ‘노동이 지나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지나치다’는 표현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지나치면 과로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과로를 인정하는 양적 기준으로는 장시간 노동이 대표적인 양상이다.²⁰⁾ 우리나라는 야근과 초과근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강도를 수행하고 있다.²¹⁾ 야근은 수면부족으로 이어지는데, 수면부족은 만성피로, 불면증, 우울증 등을 유발하며, 야근이나 초과근무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정상 근무를 하는 사람보다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²²⁾ 근무시간과 뇌심혈관계 질환과의 관련성을 실증 분석한 연구들은 국내외에서 다수 보고되고 있다. 유럽,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의 국외 연구²³⁾와 국내 임상 연

19) 요한 바오로 2세, 「노동하는 인간」, 6항.

20) 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34.

21) 厚生労働省, 「2020년 과로사 방지 백서」, <https://www.mhlw.go.jp/wp/hakusyo/karoushi/20/index.html> (접속일: 2022년 10월 15일); 박준희, 「일본의 과로노동 현황 : 「2020년 과로사 방지 백서」를 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 (2021, 1), 110; 재인용.

22) 김태열, 「질병을 부르는 상습 야근... 누가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갔을까」, 『헤럴드경제』(2016. 1. 13); 김태열, 「‘건강 스토커’ 야근」, 『헤럴드경제』(2016. 1. 14).

23) Virtanen, M., Ferrie, J. E., Singh-Manoux, A., Shipley, M. J., Vahtera, J., Marmot, M. G., & Kivimaki, M. “Overtime work and incident coronary heart disease: the Whitehall II prospective cohort study”, *European Heart Journal*, 31/14(2010), 1737-1744.; Fukuoka, Y., Takeshima, M., Ishii, N., Chikako, M., Kakaya, M., Groah, L., Kyriakidis, E., & Dracup, K. “An initial analysis: working hours and delay in seeking care during acute coronary events”, *America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28/6(2010), 734-740.; Kivimaki, M. et al., “Long working hours and risk of coronary artery disease and strok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published and unpublished data for 603,838 individuals”, *Lancet*, 386/10005(2015), 1739-1746.

구²⁴⁾에서 표준근로시간보다 과도한 근로시간은 뇌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다.²⁵⁾ 과로를 평가하는 질적 기준으로는 업무 시간 이외에도 업무 강도, 업무 특성, 실적 압박, 동료와의 관계,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역할과 책임, 업무환경 변화 등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들 수 있다. 과로로 인한 정신장애나 자살은 업무의 양보다 질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²⁶⁾

2.2.2. 자살

자살이란 ‘행위자가 스스로 죽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²⁷⁾ 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최근 자살률은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11.1명이며, 한국은 23.6명(2021년)으로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1위로, OECD 평균의 2.1배이다.²⁸⁾ 이러한 통계치는 자살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입증한다. 자살 연구학자인 에밀 뒤르켐은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다.²⁹⁾ 자살은 한 개인의 사적인 죽음이 아니라 절망적인 사회적 환경에서 선택되는 인위적인 생명의 단절인 것이다.³⁰⁾ 한국에서 자살률이 높은 데에는 성공지상주의, 지나친 경쟁, 과중한 업무, 급격한 사회변화, 스트레스, 높은 청년실업률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³¹⁾

2.2.3. 과로자살

경찰청의 변사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동기별 자살 비율은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 4,638명(34.7%), 경제생활 문제 3,564명(26.7%),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598명(4.5%)

24) Jeong, I. C. et al., “Working hours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 Korean workers: a case-control stud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55(2013), 385-391, 2013.

25) 박창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과 업무상 재해」, 『외법논집』, 41/2(2017), 273.

26) 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35.

27) 황규식,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연구 - 이른바 “과로자살”을 중심으로 -」, 25.

28)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2.9.27.), 18.

29) 에밀 뒤르켐, 『자살론』, 황보종우 옮김, (서울: 청아출판사, 2008); 장지연, 「사회적 타살과 노동」,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2014), 39; 재인용.

30) 장숙량, 「감염되는 절망: 청년여성의 절망」, 『페미니즘 연구』, (2021), 244.

31) 최동현, 「매일 740명 자살 고민하는 ‘자살공화국’... “총체적 대책 절실”」, 『머니투데이』(2017. 9. 7).

등으로 집계되었다.³²⁾ 그러나 통계를 수집할 때 직장 내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 경우 또는 직장과 관련된 경제생활 문제로 자살한 경우는 직장 업무와 관련된 자살에 미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업무 관련 자살의 비율은 드러난 통계치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과로자살은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심리적 부담으로 건강장애가 발생한 상태에 기인한 자살’로 정의된다.³³⁾ 그러나 과로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어렵고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과로가 있지 않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자살’, ‘업무로 인한 자살’을 과로자살의 범위 안에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³⁴⁾ 과로사나 과로자살 사건이 뉴스에 종종 보도되고 있지만, 이 명칭들은 법적으로 공식화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용어로 사용된다.³⁵⁾ 과로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신청하는 비율이 저조한데, 이는 회사들이 업무상 자살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³⁶⁾ 또한,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더라도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산재법상 자살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정신질환의 상병명에 따라 또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며, 자살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³⁷⁾

3. 연구방법

3.1.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text)의 어원은 ‘문서에 사용된 문자나 내용’을 의미하는데, 이는 ‘직조하다, 엮다, 짜 맞추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texere*에서 파생했다.³⁸⁾ 이는 문서에 사용된 글의 내용이 네트워크적인 연결 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선행 기사는 후속 기사로 연결되며, 우리가 속해있는 사회와 언론 기사 사이에는 지속적인 연결이 오가는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텍스트의 네트워크적인 성격을 활용하여 빅데

32)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백서』, 92.

33) 황규식,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연구 - 이른바 “과로자살”을 중심으로 -』, 28.

34) 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37.

35) 김영선, 『존버씨의 죽음』, 7.

36) 황규식,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연구 - 이른바 “과로자살”을 중심으로 -』, 4.

37) Ibid., 5-6.

38) Online Etymology Dictionary, 「text」, www.etymonline.com (접속일: 2022. 8. 11).

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한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두 가지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첫째, 텍스트에 내재된 언어와 지식은 단어와 문서 간의 관계 네트워크로 모델링 될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은 단일한 기사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기사 간에, 사회와 기사 간에 끊임없이 소통하는 관계이므로 본 연구에서 언론 기사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텍스트 네트워크 내에서 개념들의 위치와 연결패턴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나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³⁹⁾ 텍스트 분석을 통해 언론 기사의 의미나 중요한 주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과로자살 기사 분석을 통해 과로자살의 주요 이슈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여러 가지 유용성이 있는데,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빠르게 요약하고, 핵심 개념과 하위 주제들을 파악하며,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빅데이터의 양적 분석과 분석결과의 통찰 및 해석의 질적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⁴⁰⁾

3.2.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과로자살 이슈를 탐색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에서 과로자살을 주제로 한 기사 자료를 수집했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어로 ‘과로 자살’, ‘과로 극단선택’, ‘과로 극단적 선택’ 등을 입력하여 조사했다. 검색 대상은 ‘뉴스’이며, 검색어 범위는 ‘제목+본문’으로 설정했다. 검색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10년 기간으로 했다. 이 중에서 날짜, 제목, 본문 등이 동일한 기사는 중복 기사에 해당하므로 제외했고, 통합분류에서 국제 기사도 분석에서 제외했으며, 과로자살과 관련이 없는 기사(예를 들면, 예당회장 변두섭 자살)도 분석에서 제외했다. 최종적으로 385개의 기사가 선정되었고, 언론사 수는 42개였다. 수집된 원자료 중에 날짜, 기사 본문, URL을 분석에 활용했다. 검색 일자 는 2022년 9월 8일이었다.

빅카인즈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된 원자료는 비정형 텍스트인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자료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NetMiner4

39) 사이람 온라인 교육센터, 『NetMiner를 이용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미간행 내부교재, 2022.

40) Ibid., 2022.

를 실행하여 원자료를 비정형 텍스트로 불러온 후, 기사 본문에서 명사를 추출했다. 이 단계에서 추출된 단어는 총 2,690개였다. 이어서, 유의어 사전, 지정어 사전, 제외어 사전을 등록하여 단어를 정리했다.

자료분석은 NetMiner4로 진행했다. 먼저, 주요 단어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워드 클라우드를 실행했고, 주제를 몇 가지로 도출해서 보여주는 토픽 모델링을 실행했으며, 구성된 토픽들을 워드 네트워크로 시각화했다. 워드 클라우드와 워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연결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 시각화 방법이다. 이는 데이터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돕고, 숨겨진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쉽게 하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연구 결과

4.1. 워드 클라우드

4.1.1. 워드 클라우드: 빈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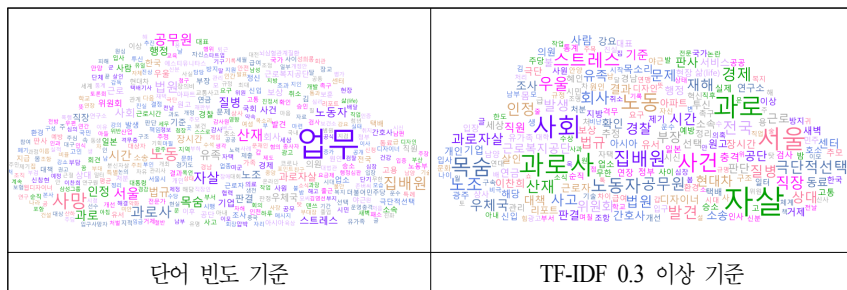
단어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분석 방법에는 빈도분석과 TF-IDF 분석이 있다. 빈도분석은 전체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출현한 횟수를 기준으로 단어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빈도를 기준으로 한 주요 단어는 업무(380회), 사망(186회), 집배원(140회), 노동(137회), 과로사(126회), 자살(119회), 산재(119회), 서울(115회), 공무원(112회), 법원(104회), 과로(102회) 순으로 나타났다. 단어빈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과로자살 기사에서 ‘업무’가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며, 과로자살은 ‘업무’와 관련된 죽음임을 확인했다.

4.1.2. 워드 클라우드: TF-IDF(문서별 단어 가중치) 기준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문서별 단어 가중치를 의미하는데, 단어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된다. TF-IDF 값은 특정 문서에서 단어의 빈도가 높을수록, 전체 문서에서 그 단어가 등장한 문서 수가 적을수록 값이 크게 나타난다. TF-IDF 값이 클수록 모든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으나, 특정 문서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TF-IDF 0.3 이상의 값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업무’와 ‘사망’은 대부분 문서에 자주 등장하므로 TF-IDF 값이 낮아져서 삭제되었고, 그 외의 단어들이 서울(TF-IDF 94회), 과로(94회), 자살(92회), 목숨(91회), 산재(85회), 노동(85회), 과로사(82회), 인정(69회), 공무원(62회), 노동자(61회), 집배원(60회) 순으로 크게 배치되었다.

[그림 1] 워드 클라우드



4.2. 토픽 모델링

4.2.1. 토픽의 구성

토픽 모델링은 문서들 안에 여러 개의 토픽이 잠재적(latent)으로 숨겨져 있으며, 토픽은 여러 개의 단어와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즉, 실제 관찰 가능한 문서 내 단어를 이용하여 그 안에 잠재된 토픽을 추정하는 작업을 한다. 토픽 모델링에서는 적절한 토픽 수를 결정해야 한다. 토픽 수를 구하는 방법은 토픽 수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모델링을 실행한 후 토픽 주제가 가장 명료하게 범주화되었다고 판단되는 토픽 수를 선택하는 방법과 토픽 수를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⁴¹⁾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방법을 통해 4개의 토픽이 구성되었다.

토픽1의 키워드는 질병, 사망, 직장, 회사, 일본, 과로자살, 산재, 자살, 과로, 간호사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토픽 이름은 “직장인 사망 과로자살”로 명명되었다. 토픽2의 키워드는 집배원, 사망, 우체국, 노조, 목숨, 야근, 전국, 소속, 사람, 과로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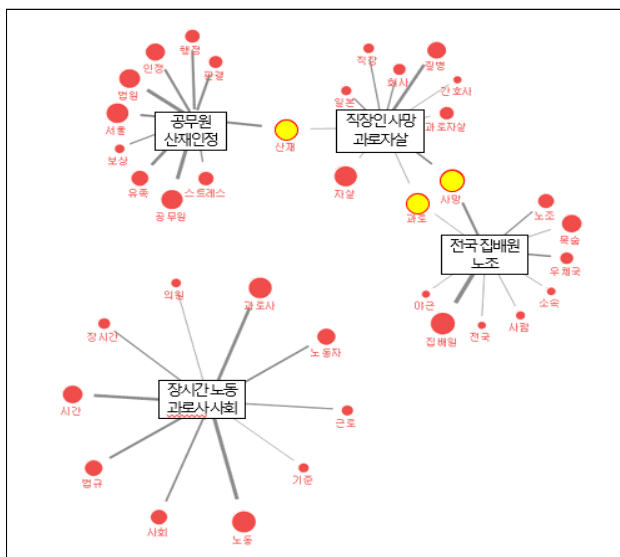
41) 이수상, 「독후감 텍스트의 토픽모델링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2016), 8.

토픽 이름은 “전국 집배원 노조”로 명명되었다. 토픽3의 키워드는 법원, 공무원, 유족, 인정, 산재, 행정, 서울, 판결, 스트레스, 보상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토픽 이름은 “공무원 산재 인정”으로 명명되었다. 토픽4의 키워드는 노동, 과로사, 시간, 법규, 노동자, 사회, 근로, 장시간, 의원, 기준 순으로 이루어졌고, 토픽의 이름은 “장시간 노동 과로사 사회”로 명명되었다.

토픽1에 속한 문서 수는 96개, 토픽2에 속한 문서 수는 111개, 토픽3에 속한 문서 수는 83개, 토픽4에 속한 문서 수는 95개였다.

4.2.2. 토픽 네트워크 맵

[그림 2] 토픽 네트워크 맵



4.3. 워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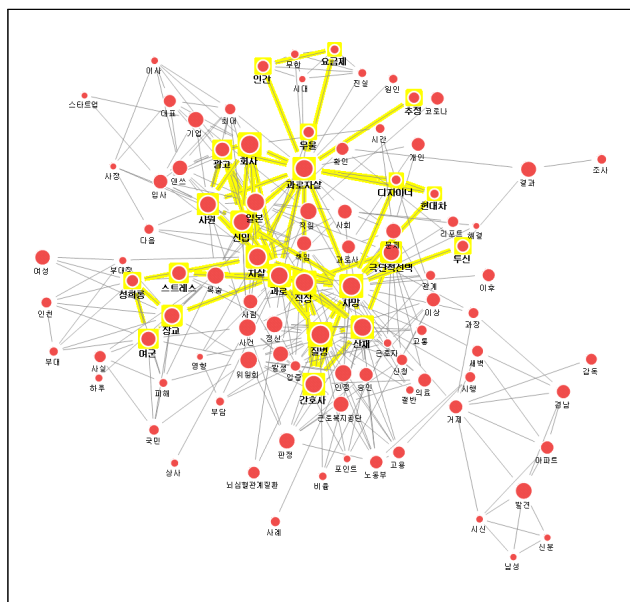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네 개의 토픽을 워드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여 제시했다. 이는 문서에 출현

한 단어들을 서로 연결하여 시각화하는 방법이다. 또한, 토픽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사 원문을 인용했다.

4.3.1. 토픽1: 직장인 사망 과로자살

토픽1은 ‘질병’, ‘사망’, ‘직장’, ‘회사’, ‘일본’, ‘과로자살’, ‘산재’, ‘자살’, ‘과로’, ‘간호사’ 등의 단어들로 연결되어 있다. ‘직장’은 ‘과로’, ‘스트레스’, ‘우울’, ‘과로자살’, ‘사망’, ‘극단적 선택’, ‘투신’, ‘자살’ 등과 연결되어 있다. ‘과로자살’은 ‘광고’, ‘회사’, ‘신입’, ‘사원’, ‘현대차’, ‘디자이너’, ‘인간무한요금제’, ‘개인’, ‘사회’, ‘문제’, ‘우울’, ‘추정’ 등과 연결되어 있다.

[그림 3] 토픽1: 직장인 사망 과로자살 워드 네트워크



토픽1을 요약하면, 과로자살은 광고회사, 신입 사원, 현대자동차 디자이너, 간호사, 대기업 과장, 성희롱 피해 여군 등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한 해 수천 명이 직장에서 ‘인간 소모품’이 되어,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과도한 노동으로 내몰리다가 투신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산재로 추정되는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토픽1에 속하는 기사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39세 대기업 과장, 4개월 사이에 4명의 직원이 사망한 게임 개발업체... 이들의 공통점은 일명 ‘인간무제한요금제’ (인간을 소모품으로 보고 과도한 노동으로 내모는 현상)라는 것이다.”⁴²⁾

“신입 간호사 투신자살로 세상에 드러난 ‘태움’.⁴³⁾ 입사 6개월 만에 몸무게 13kg 줄었다. 난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⁴⁴⁾

“지난해 직장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산업재해 신청을 한 건수가 전년도보다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⁴⁵⁾

4.3.2. 토픽2: 전국 집배원 노조

토픽2는 ‘집배원’, ‘사망’, ‘노조’, ‘목숨’, ‘야근’, ‘전국’, ‘소속’, ‘사람’, ‘과로’ 등의 단어들로 연결되어 있다. ‘노조’는 ‘우체국’, ‘집배원’, ‘전국’, ‘택배’, ‘공무원’, ‘현대차’, ‘삼성그룹’, ‘사망’, ‘분신자살’, ‘조사’, ‘요구’ 등과 연결되어 있다.

토픽2를 요약하면,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공무원, 현대차 직원 등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죽음을 맞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우체국 노조, 택배 노조, 공무원 노조, 현대차 노조 등이 연대하여 노동자의 죽지 않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며, 정당한 노동권의 보장 및 노동조건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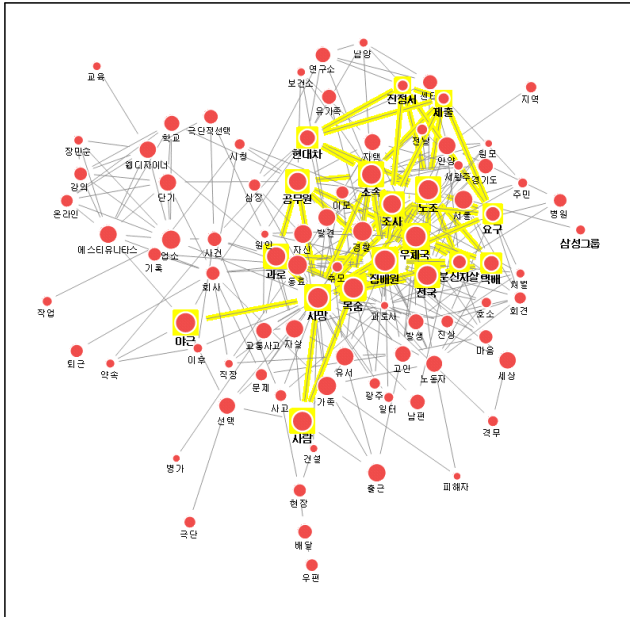
42) 한국일보, 「인간 ‘무한요금제’의 진실, 과로자살의 시대」, 『한국일보』 (2017. 7. 8).

43) 의료계의 집단 괴롭힘을 일컫는 일명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김경호, 「‘태움’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 故 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 『세계일보』 (2020. 11. 9).

44) 차주혁, 「‘유리 멘탈’ 닳히는 사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을까?」, 『MBC』, (2022. 1. 13).

45) 고병찬, 「업무 스트레스·직장갑질에 산재 신청.. 1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한겨레』, (2022. 6. 19).

[그림 4] 토평2: 전국 집배원 노조 워드 네트워크



토픽2에 속한 기사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체국에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집배원 분신을 포함해 6개월 새 집배원 등 12명이 사망했다. 우체국 집배원들은 “동료들의 죽음은 구조적 문제, 즉 사회적 살인이다.”고 말했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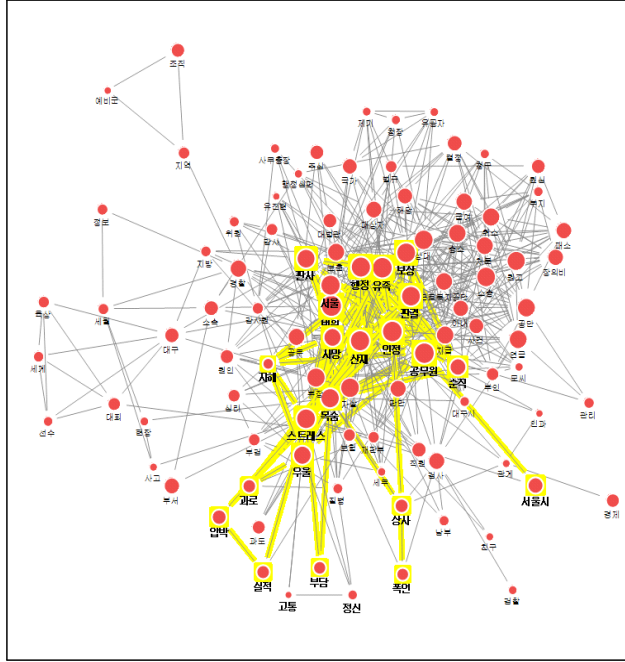
“전국우채국노조는 17일 서울 저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채국 노동자의 죽지 않을 권리, 정당한 노동을 할 권리를 찾기 위해 인권위에 국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⁴⁷⁾

46) 김규태, 「집배원은 죽고 있다... “사회적 타살, 국가 직접 조사해야”」, 『파이낸셜뉴스』 (2017. 7. 10).

47) 김규태, 「잇단 집배원 사망 ‘국가 진상조사 요구’ 인권위 진정」, 『파이낸셜뉴스』 (2017. 7. 17).

4.3.3. 토픽3: 공무원 산재 인정

[그림 5] 토평3: 공무원 산재 인정 워드 네트워크



토피크는 ‘법원’, ‘공무원’, ‘유족’, ‘인정’, ‘산재’, ‘행정’, ‘서울’, ‘판결’, ‘스트레스’, ‘보상’ 등의 단어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공무원’은 ‘스트레스’, ‘우울’, ‘자살’, ‘자해’, ‘사망’, ‘서울’, ‘판사’, ‘순직’ 등과 연결되어 있다. ‘스트레스’는 ‘실적’, ‘압박’, ‘우울’, ‘자살’, ‘과도’, ‘부담’, ‘정신’, ‘공무원’, ‘산재’ 등과 연결되어 있다.

토픽3을 요약하면, 성실하고 평범한 청년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법원 공무원, 새로운 부서에 배치된 직원 등이 실적 압박, 과도한 부담 등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공무원 자살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토픽3에 속한 기사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잇단 자살 사건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재난재해 속에는 늘 공직자의 고귀한 희생이 뒤따랐다.”⁴⁸⁾

“서울시청 공무원이 며칠을 사이에 두고 시청건물에서 투신자살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⁴⁹⁾

“새로운 부서에 배치된 뒤 2개월 후부터 우울증세를 보이다 자살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⁵⁰⁾

“남들보다 다소 늦은 나이인 35세에 공무원이 된 인천 부평구청 보건소 소속 고(故) 천민우 주무관은 과로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20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줄곧 보건소에서 일했던 그는 착실히 저축하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평범한 청년이었다.”⁵¹⁾

4.3.4. 토픽4: 장시간 노동 과로사 사회

토픽4는 ‘노동’, ‘과로사’, ‘시간’, ‘법규’, ‘노동자’, ‘사회’, ‘근로’, ‘장시간’, ‘의원’, ‘기준’ 등의 단어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토픽4에서 ‘장시간’은 ‘초과’, ‘연장’, ‘시간’, ‘과로사’, ‘사회’, ‘과로자살’, ‘집배원’ 등과 연결되어 있다. ‘사회’는 ‘장시간’, ‘노동’, ‘과로사’, ‘노동자’, ‘사망’, ‘존버씨’⁵²⁾와 연결되어 있다. ‘노동’은 ‘고용’, ‘경제’, ‘법규’, ‘장시간’, ‘과로사’, ‘안전’, ‘삶’, ‘문화’와 연결되어 있고, ‘노동자’는 ‘택배’, ‘집배원’, ‘존버씨’, ‘과로’, ‘자살’, ‘산재’,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토픽4를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일명 ‘존버씨’라고 불리는 수많은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는 과로사 사회이다. 과로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요즘은 과로사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하는 추세지만, 과로자살은 개인의 일탈로 돌리는 문화가 여전하다. 이에, 국회는 과로사 예방을 위한 입법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48) 임동혁, 「하위직 공무원 희생은 더는 안 된다」, 『매일신문』 (2013. 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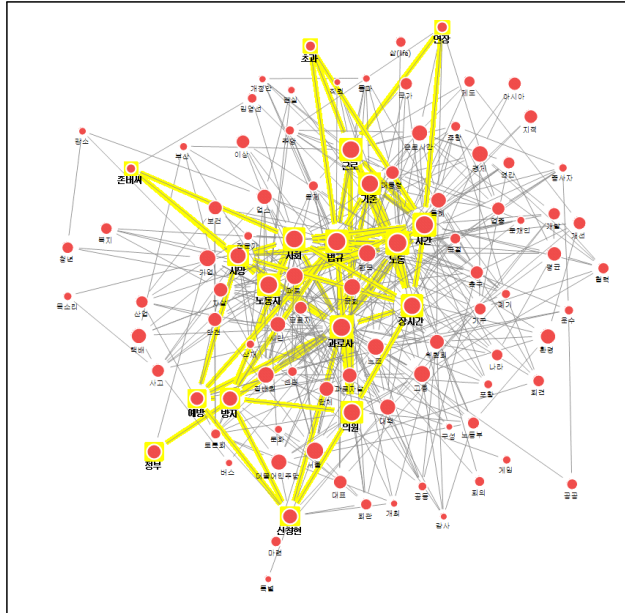
49) 김태열, 「절병 부르는 상습 야근... 누가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갔을까」, 『헤럴드경제』 (2016. 1. 13).

50) 황국상, 「법원 “실적 강요로 인한 스트레스에 극단적 선택... 업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2018. 8. 19).

51) 변민철, 「“이 나이 먹고 이런 취급” 육설 폭언 속 죽도록 일했다」, 『경인일보』 (2022. 4. 5).

52) ‘존버씨’는 사회학자 김영선의 저서에 나오는 명칭으로, 우리 사회에서 무작정 ‘존나게 버티며’ 노동하는 인간을 말한다(김영선, 『존버씨의 죽음』, 5).

[그림 6] 토픽4: 장시간 노동 과로사 사회 워드 네트워크



토픽4에 속하는 기사의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법이 만든 ‘무한노동’... 간호사집배원에 ‘섬’을 허하라. 집배원,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근로기준법은 최장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규정했지만 이들은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해도 무방하다. ‘특례업종’ 조항 때문이다... 간호사들은 인력난으로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되면서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⁵³⁾

“과로사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하는 추세지만 과로자살은 여전히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문화가 완고하다. “편한 직장은 없지. 나도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참고 일한다.” “죽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지.” 과로자살을 다룬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리는 이유다.”⁵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근로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발생하는 사망 자살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⁵⁵⁾

53) 조철희, 이진희, 「법이 만든 ‘무한노동’... 근로기준법」, 『머니투데이』 (2017. 9. 7).

54) 이지혜, 「과로자살은 우리사회 경고음... 나약함 일탈로 매도 말아야」, 『한겨레』, (2019. 1. 13).

“과로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은, 한 기업,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앓고 있는 뿌리 깊은 병입니다.”⁵⁶⁾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10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과로자살’ 기사를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시사점을 카리타스학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을 실행한 결과, 과로자살의 주요 이슈가 네 가지로 구성되었다. 토픽1은 직장인의 과로자살이 인간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상실한 것을 다루고 있다. 토픽2는 전국노동조합이 연대하여 노동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토픽3은 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산재 인정 이슈를 다루고 있다. 토픽4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의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 절에서는 과로자살에 대한 이슈들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가톨릭 사회 회칙에 근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5.1. 노동의 현실

태초부터 인간은 노동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⁵⁷⁾ 인간은 태생적으로 노동자이다. 본 연구에서 언론 기사를 분석해보니, 노동의 현실은 참담하게 비인격적이었다. 토픽4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의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노동은 인간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는 수단이자⁵⁸⁾ 자신의 소명을 이루고 삶을 완성해가는 행위이므로⁵⁹⁾ ‘안전’하고 보람되게 일하는 ‘삶’이어야 한데, 우리 ‘사회’에서 ‘노동’은 ‘산재’와 ‘사망’의 장소가 되고 있다. 인간은 노동의 주체이기보다 노동자의 인격이 ‘경제’ 시스템의 일개 수단인 ‘인간 소모품’(토픽1)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은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와 동의어로 이해되며, 노동자는 ‘존버씨’라는 이름을 달고(토픽4)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토픽1) 스스로 갈아넣고 쥐어짜다가 ‘분신’, ‘투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55) 이성철, 「임종성 ‘과로사’를 법적인 용어로 규정’ 예방 법률안 대표 발의」, 『경인일보』, (2020. 12. 7).

56) 홍신영, 「입사 2년 차 아들의 죽음 “아드님은 오래 버텼어요”」, 『MBC』, (2022. 1. 13).

57) 요한 바오로 2세, 「노동하는 인간」, 서문.

58) 레오 13세, 「새로운 사태」, 32항.

59) 요한 바오로 2세, 「노동하는 인간」, 5-6항.

5.2. 노동의 권리와 인간 존엄성 회복

노동은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사명이며, 노고(勞苦)는 모든 노동자에게 친숙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일할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노동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⁶⁰⁾ 노동은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 것일 때, 인간 존엄성을 높여주는 것일 때 가치 있고 좋은 것이다. 토픽1은 직장인의 과로자살이 인간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음을 이슈로 다루고 있다. 토픽1은 과로자살이 한두 사람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훼손된 사회·문화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한 사람이 특정한 직장 환경에서 자살했다면 우연적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겠으나,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자살했다면 이는 필연적 사건이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요 사회적 살인이다.⁶¹⁾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사회 회칙을 통해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천명했다.⁶²⁾ 인간의 노동 문제는 사회문제이고, 그 해결책은 인간의 삶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게 하는)”⁶³⁾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⁶⁴⁾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실현되려면 노동의 권리가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답게 살 권리,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토픽2), 노동을 통해 자기를 실현할 권리는 인간 존엄과 노동의 존엄을 회복하는 길과 맞닿아 있다. 또한, 노동은 책임과 의무인 동시에, 노동자 권리의 원천이 된다.⁶⁵⁾ 노동 의무에 상응하는 노동자의 권리로는 책임성, 창조성, 인격적 가치 존중이 있다. 특히, 인간은 노동과 더불어 휴식을 하면서 하느님을 닮아가야 한다.⁶⁶⁾ 그러므로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국가, 사회, 기업은 노동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인간다운, 인간을 중심으로 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가는 노동자의 객관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노동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⁶⁷⁾

60) Ibid., 6항.

61) 김영선, 『존버씨의 죽음』, 15-29.

62) 요한 바오로 2세, 「노동하는 인간」, 1항.

6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기쁨과 희망」, 38항.

64) 요한 바오로 2세, 「노동하는 인간」, 3항.

65) Ibid., 16항.

66) Ibid., 25항.

67) Ibid., 17항.

5.3. 노동과 연대

토픽2는 전국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노동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슈를 다루고 있다. 성요한 바오로 2세는 노동의 협력적 연대를 통한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⁶⁸⁾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단결권을 의미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을 대변한다. 택배 서비스노동자의 체험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혼자서는 힘이 없으니 노조를 통해 연대하여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⁶⁹⁾ 따라서 이 투쟁은 정의로운 선을 위한 정당한 노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이지만, 일종의 ‘이기주의’ 집단으로 전락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는 사회 정의의 선을 지향하려는 것이지 투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연대는 대화를 통한 공동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노사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과로자살 현상은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한 물질만능주의, 성과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같은 사회 전체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키워드로 나타난 연대는 노동자들의 노조(노동조합)를 통한 연대를 지칭한다. 그러나 연대는 본래 이데올로기적인 단어가 아니고 그리스도교적인 단어이다.⁷⁰⁾ 연대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근본적 가치로서,⁷¹⁾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겪는 고통을 우리 모두의 일로 인식하고 공동체가 불행에서 벗어나도록 한마음으로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의미한다.⁷²⁾ 지금은 단지 노조만 연대할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공동체의 비극을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5.4. 노동과 카리타스(caritas)

토픽3은 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산재 인정 이슈를 다루고 있다. 공무

68) 요한 바오로 2세, 「노동하는 인간」, 20항.

69) 문진영, 차명희, 「택배 서비스노동자의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회칙, 「새로운 사태」의 노동 윤리를 통한 성찰」, 『신학과 철학』, 39(2021), 174.

70) 최현순, 「공동체의 구성적 가치로서의 연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 9항에 함축된 연대의 신학적 개념」, 『신학과 철학』, 27(2015), 82.

71) Ibid., 84.

72) Ibid., 101.

원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장점 때문에 ‘바늘구멍’ 같은 높은 경쟁률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⁷³⁾ 하지만, 막상 공무원이 되고 보니 낮은 급여 수준, 과도한 업무량,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실망한 20~30대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고 있다. 토픽3은 꿈의 직장에 어렵게 들어갔으나 대안이 없어서 그만두지 못한 이들이 절망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사회적 성취를 추구하고 입사한 직장에서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과로자살은 사회적 모순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적인 비극이며, 한국형 ‘절망사(deaths of despair)’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⁷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은 (개인의 종교 여부를 떠나서, 가톨릭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느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는 생계 수단인 동시에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가톨릭교회의 가르침대로 “노동은 가치 있는 것, 인간의 존엄성과 부합하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고 높여주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좋은 것이며, 노동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자기완성을 이루어”⁷⁵⁾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노동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개인에게나 적용되는 가르침으로 보일 수 있다. 한편, 직업에 대한 소명보다는 당장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동을 선택해야 하고, 막다른 선택에서 정의롭지 못함에 항거하지 못한 노동자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살펴보니, 노동을 생계 수단으로 선택한 이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취로 여기고 선택한 이들—토픽3의 공무원—도 ‘소명’ 대신 ‘절망’을 경험하여 과로자살로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과로자살이 일부 노동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며, 광범위한 직업군에서 노동의 존엄성이 박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자⁷⁶⁾ 중에는 생계형 노동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필수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한다

73) 지난해 마지막으로 치러진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은 평균 50.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채빈, 「바늘구멍 뚫었는데... 서울시 2030 공무원, 최근 5년간 866명 그만뒀다」, *이투데이* (2022. 10. 19).

74) 절망사는 미국의 저학력 중년 백인층이 사회경제적 생활 수준이 저하되면서 다차원적인 ‘절망’에 내몰려 알코올, 약물중독, 자살의 특징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A. Case & A. Deaton, “The epidemic of despair: Will America’s mortality crisis to the rest of the world?” In *Foreign Affairs*, 99/2(2020), 96.

75) 요한 바오로 2세, 「노동하는 인간」, 9항.

76) 필수노동자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일컫는 개념으로, 보건·의료·돌봄 노동자, 택배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 NAVER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필수노동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79271&cid=43667&categoryId=43667>. (접속일: 2022. 11. 30).

는 소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이에, 노동하는 인간이 생계형이든 아니든 간에 “인간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근본이 우선적으로 노동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있지 않고 노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⁷⁷⁾에 입각하여 인간이 어떠한 노동을 선택하였든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일을 통해서 소명과 자부심을 느끼며 노동할 수 있는 노동환경과 조건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레오 13세는 사회 회칙 「새로운 사태」에서 노동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해결책으로 애덕의 실천, 즉 카리타스를 제시했다.⁷⁸⁾ 과로자살을 비롯한 노동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사람이 사랑 실천(caritas)의 열정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정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되, 자기의 안녕을 보살피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소명으로 선택한 일터(공무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서 ‘절망’하지 않고 ‘사랑의 실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는 훌륭한 법과 현명한 제도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주는 자기 의무를 명심해야 하고, 교회는 모든 시대에 모든 방법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각자 최선을 다해 ‘공동선’의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⁷⁹⁾

본 연구는 노동 관련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최근 10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과로자살’ 기사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을 카리타스학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카리타스학은 인간 존엄성을 옹호하는 사회적 실천을 그리스도교 사상 관점에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로자살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드러난 주제들을 그리스도교 노동관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노동의 현실이 절망적으로 비인격적이며, 노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간의 삶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확인하였다.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실현하려면 인간답게 살 권리,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동을 통해 자기를 실현할 권리 등,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의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연대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해야 하며, 노동자들이 자신의 소명으로 선택한 일터에서 애덕의 실천을

77) Ibid., 6항.

78) 레오 13세, 「새로운 사태」, 41항.

79) Ibid., 41항.

할 수 있도록 국가, 사업주, 교회가 각자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선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 본 연구를 시발점으로 하여 과로자살 예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교회문헌

- 레오 13세, 『새로운 사태』 (Rerum Novarum),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 요한 바오로 2세, 『노동하는 인간』 (Laborem Exercens),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3.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 기쁨과 희망』 (Gaudium et Spec),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1.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연구문헌

- 김미림, 『자살의 업무재해성에 관한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김성우, 「카리타스학(Caritaswissenschaft/Caritas Science) 관점에서 바라본 가톨릭 사회복지의 방향」, 『가톨릭신학』, 36(2020), 261-288.
- 김영선, 『존버씨의 죽음』, 파주: 오월의봄, 2022.
- 뒤르켐, 에밀(Durkheim, Émile), 『자살론』, 황보종우 옮김, 파주: 청아출판사, 2008.
- 문진영, 차명희, 「택배 서비스노동자의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회칙, 「새로운 사태」의 노동 윤리를 통한 성찰」, 『신학과철학』, 39(2021), 159-183.
- 박정률, 『인간 중심 노동 - 회칙 「노동하는 인간」을 통한 인간 노동의 이해 -』, 서울: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박준희, 「일본의 과로노동 현황 : 2020년 과로사 방지 백서를 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 (2021), 106-118.
- 박창범, 「업무상 코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과 업무상 재해」, 『외법논집』, 41/2(2017), 273-289.
-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2.9.27.
- 사이람 온라인 교육센터, 『NetMiner를 이용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미간행 내부교재, 2022.
- 송해리, 『간호사 ‘태움’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 제도적 문화기술지 접근』,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이상윤, 「과로로 인한 자살의 헌법적 문제 - 일본의 경우를 소재로 하여 -」, 『공법학연구』, 8/4(2007), 329-354.

이수상, 「독후감 텍스트의 토픽모델링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2016), 1-18.

장숙량, 「감염되는 절망: 청년여성의 절망」, 『페미니즘 연구』, 21/2(2021), 235-247.

장지연, 사회적 타살과 노동: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2014), 39-57.

최현순, 「공동체의 구성적 가치로서의 연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 9항에 함축된 연대의 신학적 개념」, 『신학과철학』, 27(2015), 81-118.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서울: 나뭇잎, 2021.

황규식,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연구 - 이른바 “과로자살”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Case, A. & Deaton, A., “Mortality and morbidity in the 21st century”,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BPEA Conference Drafts*, 23-24(2017, 3).

Fukuoka, Y., Takeshima, M., Ishii, N., Chikako, M., Makaya, M., Groah, L., Kyriakidis, E., & Dracup, K., An initial analysis: working hours and delay in seeking care during acute coronary events. *America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28/6(2010).

Hazards, *Suicidal work: Work-related suicides are uncounted*, (2017, 3). <https://www.hazards.org/suicide/suicidalwork.htm> (접속일: 2022. 10. 15.).

Jeong, I. C., et al., “Working hours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 Korean workers: a case-control stud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55(2013).

Kivimäki M., et al., “Long working hours and risk of coronary artery disease and strok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published and unpublished data for 603,838 individuals”, *Lancet*, 386/10005(2015).

Virtanen M., Ferrie, J. E., Singh-Manoux, A., Shipley, M. J., Vahtera, J., Marmot, M. G., & Kivimäki, M., “Overtime work and incident coronary heart disease: the Whitehall II prospective cohort study”, *European Heart Journal*, 3114(2010).

厚生労働省, 『2020년 과로사 방지 백서』, 2020. <https://www.mhlw.go.jp/wp/hakusyo/karoushi/20/index.html>,

인터넷 사이트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카리타스학전공」, <https://www.kkot.ac.kr/gradu/contents/view?contentsNo=145&menuLevel=2&menuNo=238> (접속일 2022. 10. 19).

고병찬, 「업무 스트레스·직장갑질에 산재 신청.. 1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한겨레』 (2022. 6. 19).

김경호, 「‘태움’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 故 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 『세계일보』 (2020. 11. 9).

김규태, 「잇단 집배원 사망 ‘국가 진상조사 요구’ 인권위 진정」, 『파이낸셜뉴스』 (2017. 7. 17).

김규태, 「집배원은 죽고 있다... “사회적 타살, 국가 직접 조사해야.”」, 『파이낸셜뉴스』 (2017. 7. 10).

김채빈, 「‘바늘구멍’ 뚫었는데... 서울시 2030 공무원, 최근 5년간 866명 그만뒀다」, 『이투데이』 (2022. 10. 19).

김태열, 「‘건강 스토키’ 야근」, 『헤럴드경제』 (2016. 1. 14).

김태열, 「질병 부르는 상습 야근... 누가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갔을까」, 『헤럴드경제』 (2016. 1. 13).

변민철, 「“이 나이 먹고 이런 취급” 육설 폭언 속 죽도록 일했다」, 『경인일보』 (2022. 4. 5).

이성철, 「임종성 ‘과로사를 법적인 용어로 규정’ 예방 법률안 대표 발의」, 『경인일보』 (2020. 12. 7).

이지혜, 「과로자살은 우리사회 경고음... 나약함·일탈로 매도 말아야」, 『한겨레』 (2019. 1. 13).

임동혁, 「하위직 공무원 희생은 더는 안 된다」, 『매일신문』 (2013. 5. 20).

조철희, 이진희, 「법이 만든 ‘무한노동’... 근로기준법」, 『머니투데이』 (2017. 9. 7).

차주혁, 「‘과로자살’ 40대 가장이 또 죽었다. 쿠팡에서 벌어진 일」, 『MBC』 (2022. 2. 23)

차주혁, 「‘우리 멘탈’ 타하는 사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을까?」, 『MBC』 (2022. 1. 13).

최동현, 「매일 740명 자살 고민하는 ‘자살공화국’... “총체적 대책 절실”」, 『머니투데이』 (2017. 9. 7).

한국일보, 「인간 ‘무한요금제’의 진실, 과로자살의 시대」, 『한국일보』 (2017. 7. 8).

홍신영, 「입사 2년 차 아들의 죽음 “아드님은 오래 버텼어요”」, 『MBC』 (2022. 1. 13).
황국상, 법원 「실적 강요로 인한 스트레스에 극단적 선택... 업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2018. 8. 19).
NAVER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필수노동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79271&cid=43667&categoryId=43667>. (접속일 2022. 11. 30).
Online Etymology Dictionary, 「text」, www.etymonline.com. (접속일 2022. 8. 11).

과로자살 뉴스 기사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카리타스학적 함의

김미숙 · 김승주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과로자살’ 기사를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시사점을 카리타스학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빅카인즈(Big Kind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과로자살’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42개 언론사의 385개 기사를 수집했다. 자료 분석을 위해 NetMiner4를 활용하여 워드 클라우드, 토픽 모델링, 워드 네트워크를 구현했다.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우리나라 노동의 현실을 살펴본 결과, 과로자살 문제가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노동의 연대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국가와 사업주와 교회는 노동자들이 사랑실천(caritas)의 열정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자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선의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

주제어: 과로사, 과로자살, 노동하는 인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절망사

Teachings of the Catholic Church and the Implications from a Caritas Science Perspective on the Analysis of News Articles on Suicide due to Overwork

Kim, Mee-Sook · Kim, Seung-Ju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articles of ‘suicide due to overwork’ reported in the news over the past 10 years through text analysis, and to examine its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from a Caritas science perspective. For this, 385 articles from 42 news media were collected by searching ‘suicide due to overwork’ as a keyword in Big Kinds database. For data analysis, word cloud, topic modeling, and word network were implemented using NetMiner4. After examining the reality of labor in the light of the teachings of Catholic Church, the implications of ‘suicide due to overwork’ are summarized. First, worker’s rights and human dignity must be restored. Second, community development should be pursued through solidarity of labor. Third, the state, business owners, and the church must fulfill their respective duties an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he common good so that workers can fulfill their roles with the passion of caritas.

Key Words: Death from overwork, Suicide due to overwork, Laborem Exercens, Text Network Analysis, Death of despair

논문 투고일	2022년 10월 31일
논문 수정일	2022년 12월 15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2년 11월 25일
